

## 社會奉仕機關으로서의 大學附設研究所

具 本 湖  
(KDI 院長)

### 1. 序 言

大學의 機能은 敎育을 통하여 高級 人的 資源을 養成, 배출하고 또 研究를 통해 學問 및 科學技術 水準을 향상시키고 知識資源을 축적시키며 社會에 奉仕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社會가 高度産業社會로의 移行에 있어서 이러한 大學의 機能은 한층 더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機能이 우리나라 大學에 구체적으로 內面化되어 조화롭게 구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특히 大學을 人文主義 및 敎養 중심의 大學과 研究·奉仕 중심의 멀티버시티(multiversity) 大學으로 구분할 때 현대의 大學은 後者의 멀티버시티 機能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大學은 전통적으로 가르침에만 치중해 왔다. 다행히 최근 연구 활동 분위기는 아직 미흡하나마 그래도 활발해지기 시작한 데 반해 大學의 社會奉仕 機能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社會奉仕의 機能이란 敎授 및 研究機能에 의한 결과를 직접 社會에 援用하기 위한 활동이며 변천하는 社會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전문 기술자의 育成 活動과 社會參與 活動을 의미한다. 이러한 社會봉사의 機能은 社會가 발전함에 다

라 점차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과거 한 때는 大學이 유일한 理念 아래 一元的인 制度로서 존재한 바 있으나 이러한 성격을 지닌 大學은 變化 속도가 빠르게 다양해 가는 現代社會에서 정체되고 폐쇄적이며 독단에 빠질 위험성을 갖고 있어서 현대의 大學은 점차 多元的인 性격을 지닌 大學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大學은 學問爲主의 象牙塔式 孤高主義에서 의 탈피가 요구되며 오히려 社會 變化의 動因으로서 국가, 社會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大學과 社會의 紐帶關係 문제에 있어 社會는 大學을 지원하여 大學이 社會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知的인 奉仕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 국가 社會의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즉 大學이 발전하면 社會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大學의 社會奉仕 機能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도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大學에서 産·學·研 協同 프로그램의 확충, 강화는 물론 平生敎育 및 社會敎育의 機能도 활성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奉仕하는 大學이라는 새로운 社會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大學附設研究所의 역할도 새로운 차원에서 정립되고 발전되어야 하겠다.

本稿에서는 먼저 大學附設研究所가 행하고 있는 社會奉仕의 類型을 알아본 다음 大學附設研究所의 現況과 問題點을 살펴 보고 社會奉仕의 擴大를 위한 大學附設研究所의 發展方案을 알아 보고자 한다.

## 2. 大學附設研究所의 社會奉仕 類型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高度産業化 社會에 있어서는 大學의 奉仕 기능이 점차 중요시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大學 內部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사회봉사 기능을 주장하는 생각과 보다 적극적인 사회봉사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들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社會奉仕라는 의미에서 大學附設研究所의 활동 내용은 아직도 연구 위주이며 平生敎育이나 社會敎育에 대해서는 그 활동이 저조한 상태이다.

社會奉仕라는 의미에서의 研究 및 敎授와 전통적인 大學의 研究와 敎授 기능상 차이는 지원 하는 대상이 다른 데에 그 차이가 있다. 社會的인 奉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전통적으로 大學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大學 外的 集團을 위한 研究와 敎授인 것이다.

大學 外的 集團의 개념은 社會的 關係의 動的 變化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날 大學附設研究所의 大學 外的 集團에 대한 '서비스'를 大別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大學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企業이나 政府 또는 특정한 個人과 地域社會에 諮問, 情報 또는 技術의 支援을 하는 경우이다.

둘째, 公共的 政策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로서 大學附設研究機關이나 敎授 個人과 集團이 각각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 會議, 세미나, 워크숍 또는 단기 연구과정 등 非學位 과정을 통해서 公務員, 社會奉仕員, 企業의 간부 또는 여러 전문가에 대한 敎育支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敎育的 支援을 大學이 담당하고 있는 좋은 예는 大學敎授가 企業 또는 정부에 나가서 연수敎育에 협조하는 일이라든지 大學의 研究所가 기업과 정부의

여러 과제를 맡아서 연구하는 일 또는 大學이 平生敎育 프로그램으로서 非正規的 大學敎育을 실시하거나 專門家의 연장敎育을 실시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최근에 와서 大學의 研究所는 社會에 대하여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면서 問題解決을 위한 研究를 수행하고 對象을 위한 敎育의 場을 마련하는 세 가지 유형에 따라 奉仕하고 있는 것이다.

## 3. 大學附設研究所의 現況과 問題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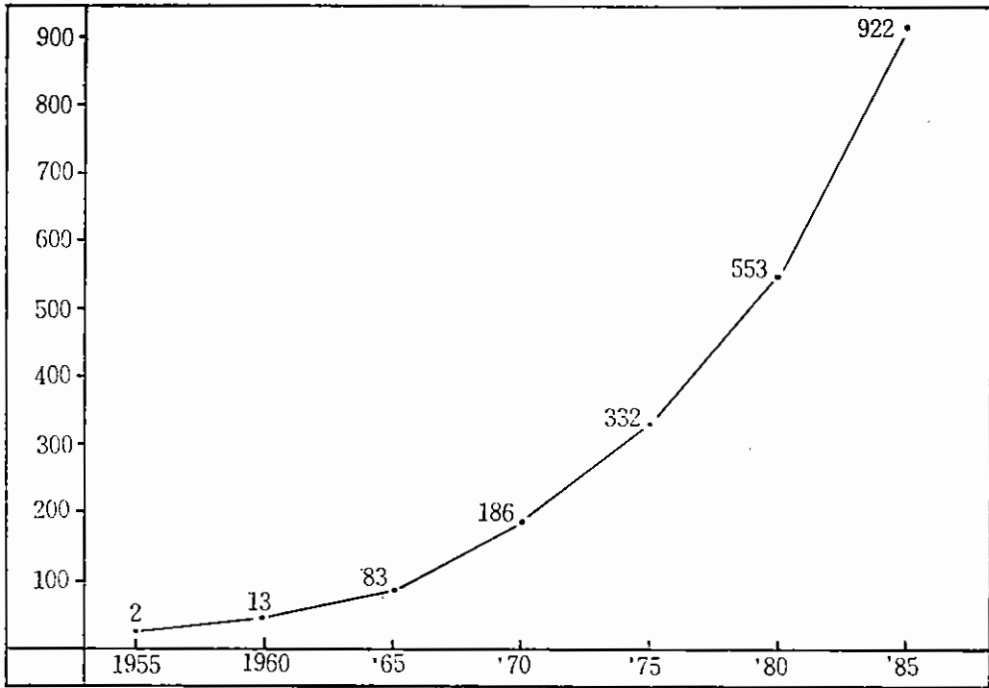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발간한 「大學附設研究所 總覽」에 의하면 1985년 현재 전국의 대학 부설 연구소는 총 922개에 달한다. 이 중에는 '새마을연구소', '학생지도연구소' 등의 급조된 연구소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학연구소는 어쨌든 1960년대 이후 公業化를 위주로 한 일련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함께 양적으로 급성장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기관의 量的인 多寡에 대한 논의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구 기관들이 앞에서 열거한 그 본연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사회계가 38.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문계(19.5%), 종합(10%), 이학계(9.3%), 공학계(7.8%), 의·약학계(6.1%) 순으로 되어 있다. 이학계, 공학계 등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소보다 사회, 인문계통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각 대학이 고유의 特性과 文化를 살릴 수 있는 연구소를 육성한다거나 기초과학의 진흥에 노력하는 것보다 敎育 당국이 유도하는 정책에 外形的으로만 부응하여 유명무실한 연구소를 설립해 왔기 때문에 나타난 不均衡이라 생각된다.

이는 投資財源 調達方案도 없이 허식적이고 전시적인 연구소를 난립한 데 따른 결과이며 상당수의 연구소는 그 기능이 전무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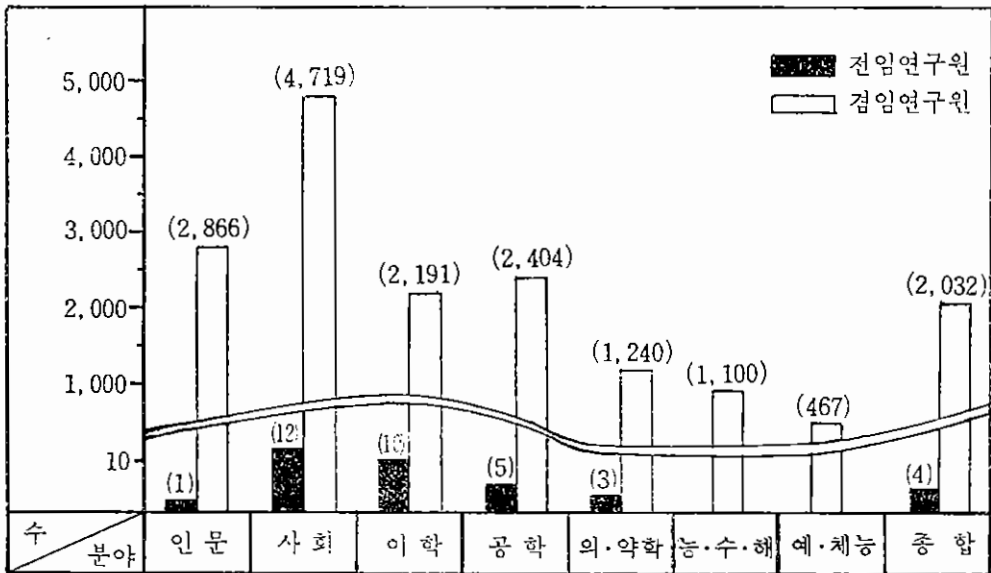
이같은 현상은 '80년대에 들어서 이루어진 대학 부설연구소 설립의 급팽창(〈그림 1〉 참조) 및 전임 연구원 수, 운영비, 도서 발간 실적 등을 살펴 볼 때 더욱 뚜렷해진다.

〈그림 1〉 대학 부설연구소 증가 추이('85년 현재)



자료 :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총람」, 1985, p.29.

〈그림 2〉 분야별 연구원 현황('85년 현재)



자료 :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총람」, 1985, p.30.

연구원의 현황(〈그림 2〉 참조)을 보면 인문, 사회계가 절대 수로는 가장 많으나 연구소 단위당 연구원 수로 환산하면 공학계(33.4), 이학계(25.6), 의·약학계(22.2), 인문계(16), 사회계(13.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연구원의 대부분은 겸임연구원으로 전임급 이상의 대학 교수들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전임연구원 대 겸임연구원의 비율은 1:500이며 農·水·海分野나 예·체능계는 전임연구원이 한 명도 없다.

대학 부설연구소가 행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教授와 研究活動을 겸임하는 교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대학생이 급팽창한 데 반해 대학 교수가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다기보다 연구소가 편집하는 定刊物이나 單行本에 게재하는 데 그치는 정도이다. 실로 대학 연구소의 社會奉仕의 기능은 空洞化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편 대학 부설연구소의 運營費를 집계해 보면 1985년도 연간 총액은 76억 원 가량에 이른다. 이 역시 절대 액수는 사회, 인문, 공학, 의·약학 및 이학의 순으로 나타나나 이를 연구소 단위로 나누어 보면 그 순서는 공학, 의·약학, 인문, 사회 및 이학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이로부터 우리는 應用研究에 비해 基礎研究 분야의 연구소들이 운영면에서 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85년에 연구 실적으로 단행본을 출간한 연구소는 사회계가 156개소, 인문계가 86개소, 종합연구소가 26개소, 예·체능계가 16개소, 이학계와 공학계가 각각 13개소, 의·약학계가 10개소, 농·수·해양계가 7개소에 불과하여 대학부설연구소의 실태를 실증하여 주고 있다.

더불어 연구 활동에 필요한 圖書 및 研究資料를 관찰해 본 결과 공간에 알려진 몇몇 유명한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독립적인 도서실 또는 자료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문·사회계의 경우 대부분 한두 개의 방만을 소유하여 사실상 활발한 연구를 진행시키기 어려운 실정이고 심한 경우 연구소장의 교수연구실이 곧 연구소인 경우도 적지 않은 상태

이다.

최근 들어 대학의 對社會 奉仕機能이 강조됨에 따라 전래의 純粹研究 위주의 연구 활동을 應用研究로 그 범위를 확산시키면서 외형적으로는 국가나 산업계의 연구비 지급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이는 產學協同과 관련해서 大學의 研究機關에 대한 產業界의 요청이 可視的인 利益이나 직접적인 效果에만 치중되어 온 실정이며 또 정부기관의 경우도 프로젝트의 發注가 자신들이 이미 設定해 놓은 정책 방향의 합리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것은 協同이 아니라 產業界에 대한 大學 一方의 증속화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학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지나친 商業主義에로 전락하거나 정부의 官用化될 소지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 4. 大學附設研究所의 發展 方案

앞서 본 바와 같이 大學附設研究所는 아직 社會奉仕라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高度産業社會에로 社會가 發展하는 과정에 있어 附設研究所를 통한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이 그동안 경시되어 왔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에 대한 社會 全般的인 認識의 不足 때문이었다. 社會奉仕機關으로서 大學附設研究所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政府, 產業界, 政府出捐研究所 및 大學附設研究所 자체로부터 大學附設研究所의 社會奉仕 기능에 대한 역할 認識의 새로움이 있어야 하겠다. 즉 政府, 產業界, 政府出捐研究所와 相互依存 및 補完關係下에 大學附設研究所가 社會奉仕機關으로서 발전되어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재정적 지원(seed money)은 물론 政府出捐機關과의 相互交流 관계를 위한 制度的·行政的 支援과 이들의 交流를 위한 전반

적인 社會的 劣因氣 誘導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産業界는 自體 研究所의 設立, 育成에만 치중하던 종래의 추세에서 벗어나 問題의 解決과 業務計劃 문제와 관련하여 專門機關에 의뢰하거나 協調를 요청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業界 자체로부터의 변천하는 自己需要에 대한 정보가 政府出頭研究所라든지 大學附設研究所와 연계 協同되어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用役發注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政府出頭研究所의 機能도 달라져야 한다. 自體 研究員들을 통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던 과거와는 달리 大學附設研究所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음으로써 보다 效率性을 높일 수 있다는 認識의 제고가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大學附設研究所의 自己刷新이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 발휘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研究所가 교수의 補職 賦與의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外部 效果 창출이 가장 분명한 基礎科學 분야에서의 독자적인 연구 영역

을 확보함으로써 政府의 보조를 획득함은 물론 産業界의 관심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 研究所에 대한 專任教授制의 도입으로 一般教授와 研究所 專任教授間 상호 원활한 變身이 가능토록 하여 教授·研究·著述 활동의 효율화를 기하는 방안도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本稿에서는 大學의 여러 機能, 즉 教授, 研究, 社會奉仕와 관련하여 특히 社會奉仕機關으로서 大學附設研究所의 문제를 살펴 보았다.

다시 요약해 보면 社會奉仕機關으로서 大學附設研究所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政府, 産業界, 政府出頭研究所 및 大學附設研究所 자신의 새로운 認識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積極的 支援과 自己刷新이 先決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學校마다 相對的 比較優位에 입각하여 再整備된 研究所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새로운 차원에서의 産·學·研 協同은 물론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 수량은 提高될 것이다. \*